

내 집앞 마트 '찾아가는 이동장터' 3대 장학사업으로 지역인재 육성

임실군, 생필품 구매 어려운 농촌 지역 주민 위해 본격 운영

임실군이 생필품을 사는 데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장터'를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군은 지난해 10월 제막식을 통해 첫 선을 보인 '찾아가는 이동장터'의 운영 준비를 마무리하고, 이날부터 본격적인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가가호호 이동장터'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생필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 지역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준비 단계부터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직접 유통 경로를 발굴·연결하는 발품 행정을 통해 대형마트 수준의 합리적인 가격을 구현해 가격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특히, 어르신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시장이 있는 읍내까지 이동하지 않아도 집 앞에서 신선식품과 생필품을 편리하게 구매하고 집집마다 배달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수행기관인 임실시니어클럽과 손을



임실군이 생필품을 사는 데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장터'를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잡아 공식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임실시니어클럽은 2월 한 달간 임실을 4개 마을(이도리, 성가리, 두곡리 제외)을 순회하며 시범 운영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 '행복용품 9988' 등 시장형 사업 운영경험을 접목해 수익성보다 공식성을 우선하는 농촌형 복지·일자리 연계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범운영은 향후 군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심민군수는 "지난해 8월 제정된 '임실군 식품 사막화 해소 및 지원 조례'를 토대로 이동장터를 단발성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생활복지 정책으로 키워가겠다"며 "이동장터가 단순한 판매 차랑을 넘어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마을에 활력을 더하는 '달리는 사랑방'이 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맞춤형 장학사업 운영

남원시 춘향장학재단은 지역 내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정주여건 개선 일환으로, 성적, 재능, 진로 성과 등 인재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장학사업을 운영하며, '춘향인재장학금', '남원의 별 특별 장학금', '오픈인재 특별 장학금' 등 3대 장학사업을 통해 지역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다.

'춘향인재장학금'은 학업 성취도, 특기·재능, 생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하는 춘향장학재단의 대표적인 기본 장학사업으로, '우수 장학금'은 학업 또는 재능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대학교 신입생 △고등학생 △특기생 부문으로 구분해 선발한다.

특기생 부문은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 중 전년도 도(광역시)대회 이상 입상자와 예체능 분야 중학생 중 전년도 시(기초자치단체)대회 이상 입상자를 대상으로 평가하고, '보람 장학금'은 학업 성적뿐만 아니라 생활 여건까지 함께 고려하는 장학금으로, 대학교 신입생과 고등학생을 선발한다.

'희망 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대학교 신입생과 고등학생을 선발,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성실히 학업에 임한 학생에게 실질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남원의 별 특별 장학금'은 기부자들의 소중한 기탁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바탕으로, 전국 및 국제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남원의 위상을 높인 예체능 분야 특기생에게 지급, 해당 장학금은 2023년부터 시행되어 2025년까지 총 37명의 장학생에게 1억 7천3백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재단은 2026년부터 운영 체계 전반을 개선해 장학금을 운영할 예정이며, 변경된 세부 기준과 운영 방식은 남원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오픈인재 특별 장학금'은 남원시가 추진 중인 '오픈인재 육성사업'에 참여한 학생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 후 국내 최상위권 대학에 진학한 학생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인재 육성 정책과 춘향장학재단 장학사업을 연계한 대표적인 정책 연동형 장학금이다.

신청 대상은 오픈인재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1학기 이상 수료하고 출석률 50% 이상을 충족한 자로, 당해 연도 국내 최상위권 대학에 진학한 경우에 한한다.

신청은 연중 수시 접수로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남원시청 교육체육과를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사람이 머무는 홍보 전략 추진

남원시, 시민 체감 생활 중심 홍보 전환

남원시가 2026년을 맞아 시민과 함께 만들고, 함께 공감하는 홍보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 전략은 전국 지자체의 '웹프 홍보' 흐름에서 벗어나, 공무원이 직접 나서서 패러디·밈 제작 방식이 아닌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중심 홍보 전환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남원시에서 추진 중인 각종 정책, 제도, 사업 등을 일반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의 일상 속 변화와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내 남원 시민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함께 만드는 홍보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공식 유튜브 채널 남원시 TV를 시민 소통 대표 플랫폼으로 삼아 1분 내외의 영상(숏츠)을 중심으로 짧고 명확한 영상 콘텐츠 제작을 확대할 계획이며, 정책 설명형 콘텐츠와 시민 체험형 콘텐츠를 병행해 정보 전달력과 공감도를 동시에 높일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시민과의 즉각적인



소통 홍보를 위해 '일포인트 남원' 코너를 운영하며 주요 시정 정보를 쉽고 간결하게 전달해 왔으며, 최근에는 '짧음이 피어나다'라는 신규 콘텐츠를 선보여 남원에서 꿈을 키워가는 젊은 청년의 삶을 조명하며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설 명절 앞두고 '공직 특별감찰' 실시

설 명절을 앞두고 임실군이 공직사회 기강 잡기에 나섰다.

임실군은 지난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분청과 직속기관, 읍·면 전반을 대상으로 '공직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금품수수, 향음 제공, 근무 태만 등 각종 비위 행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중점 감찰 사항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허위출장,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부위반 행위, 민원 방치 및 고

의 지연, 행정 편의적 업무처리, 업무 회피 기강 잡기에 나섰다. 임실군은 지난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분청과 직속기관, 읍·면 전반을 대상으로 '공직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금품수수, 향음 제공, 근무 태만 등 각종 비위 행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중점 감찰 사항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허위출장,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부위반 행위, 민원 방치 및 고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 위한 특별점검·단속

순창군은 설 연휴 기간 중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특별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이번 점검을 위해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2월 9일부터 설 연휴 전까지 오염물질 배출 우려가 있는 업소와 하천 방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감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상수원 수계와 농공단지 주변

등 오염 우심 지역 하천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해 불법 오염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기간 가동 중단 등으로 환경 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오염물질 처리에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휴 이후 정상 가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청년 1인 소상공인 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순창군이 올해부터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출산 후 생계 단절 위기에 놓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산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특히, 이 사업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자영업자와 농어업인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원 대상은 현재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전북특별자치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도내에서 1인 소상공인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8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이 해당되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출산급여(여성)는 본인이 출산한 경우 90만 원으로,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만 지원하며,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19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된다.

출산휴가지원금(남성)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80만 원으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이 필요하며 고용노동부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혜자는 제외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제2회 양지천 사진공모전 개최

순창군이 지역의 대표적인 자연경관 자원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양지천·경천에 반하다' 제1회 순창군 양지천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순창읍을 흐르는 양지천과 경천의 사계절 풍경과 감성적인 경관을 주제로, 사진을 통해 순창의 매력을 새롭게 조명하고 향후 관광 홍보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접수는 오는 8월 3일부터 8월 28일 오후 6시까지이며, 순창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지역·연령 제한 없이 전국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개인 또는 3인 이내의 단체로 참여 가능하고, 1인(팀)당 최대 2점까지 출품할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별기에 출신 지정인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